

그 해 (80년) 7월.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는 원망스럽게도 그칠 줄 모르고 있었다. 그이의 사업 부진으로 가산마저 동강나, 몇 가지만 골라 실은 짐과 함께 서울에서 전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처참했다. 그의 고향 전주 태평동에 이삿짐이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그 곳의 단칸 사글세 방은 며칠 전 그이가 비밀리에 내려와 계약해 놓았던 것이다. 주인집을 합해 3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게 되어 있는 집이었다. 그 중 우리 방은 대문 맞은 편 3평 남짓한 것으로,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이였다. 우리는 이 곳을 뱃속에 든 첫 아이를 낳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의 보금자리로 정했다.

며칠 후 그이는 곧 건설회사(주택)의 현장 주임으로 취직이 되어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채무자의 시달림에서 해방된 작은 기쁨을 느끼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갔다.

바로 옆 부엌 쪽으로는 남매가 거주하고 있었다. 오빠는 용접공이고 동생은 B메리야쓰 '공장에 나가는 또순이' 같은 살림꾼이었는데 이 아가씨는 일주일 간격으로 야간 작업이 돌아 올 때면 으레히 주간에는 부엌 일거리를 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결국, 나도 부업으로 뜨게질 일에 열중하게 됐다. 나보다 3살 아래인 그 아가씨는 허심탄회하게 곧잘 자기 과거를 말해주고는 슬픔에 잠겼었는데 그 때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곤혹을 치렀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는 4개월째 무사히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아니 내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그 해 8월 21일 밤.

전기 다리미의 과열로 인한 화재가 일어난 것이었다.

그날 밤 밖에서 돌아 온 그이와 내가 마당으로 들어 섰을 때 매캐한 냄새가 콧속을 진동시켰다. 우리가 들어서자 주인 방에서 계모임을 치루던 주인 아저씨의 계원들이 팔다리를 올려 불인 채 그이와 나를 경멸의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다. 나는 어떤 불길한 예감속에 사람들 틈사이로 뛰어가 방문 앞으로 다가섰다. 순간 눈에 들어오는 광경에 나는 그만 쓰러질 뻔 했다.

체험수기/불조심 여성 수필·수기 모집 가작

쓰레기 더미처럼 저 쪽으로



남궁 순

바로 눈 앞 방안에서 타다 남은 시커먼 잔해가 나의 모든 신경조직들을 마비시켜 놓고만 것이다.

“이 미친 것아 내 어린 자식 팔 내놔! 엉!”

바로 이 때 주인 아주머니가 앙칼진 음성과 함께 나의 등을 나꿔채는 바람에 몸의 중심을 가눌 틈도 없이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당황감에 말문까지 막히어 찢찢했다.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아주머니.”

나를 부추기며 일으켜 세우는 그이의 떨리는 음성이 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되긴, 이 여자가 다리미를 뽑지않고 나가서 불이 붙었던 말여!”

주인 아주머니는 반쯤 울먹이고 있었다. 이어 계모임에 온 남자분들도 제각기 한 마디씩 내뱉어 놓기 시작했다.

“원체 잘못 했구먼!”

“요즘 젊은 여잔 건망증이 많아.”

“우리 아녘음 애새끼 꼬실라 죽일 뻔 했구먼!” 등등 한마디씩 내뱉어 그이보다는 내게 꼬챙이같은 핀잔을 주고 있었다.

그이는 뒤 쪽의 비양거리는 놀림에 분노를 삭이면서 허공에 시선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터인데 나는 어디 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도 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깨어진 것은 미장일로 다쳐진 주인 아저씨의 슬



뚜껑만한 주먹이 아주머니의 얼굴을 후려치는 소리였다.

“이×년! 애초 내가 뭐랬어. 선승이 집에서 이사오기로 했다고 말했잖여. 뭐?, 바깥 양반이 점잖게 생겼다고?. 그래, 네 년이 반해서 주었으니 소원대로 잘됐구나! 이 년아!”

이번에는 그 남자의 발뿌리가 아주머니의 허리쪽을 걷어차지 않는가. 순간 아주머니는 쓰레기 더미처럼 저 만큼, 마치 타다 남아 쓸모없게 된 내 방안 가구들 처럼 버려진 것 같았다.

‘진퇴양난’ 이런 때를 두고 설정된 단어가 아닐까. 그이도 나도 어찌지 못하고 가시방석에 서있는 참담한 처지가 됐다. 주인 아저씨 계원 몇 분이 넘어진 아주머니를 부축해 안방으로 사라졌다.

“여보시오. 이라고만 서있지 말고 한 분일랑 어린 애와 함께 병

원에라도 가 보슈.”

주인 아저씨의 계원 누군가가 등 뒤에서 한 말이었다.

나는 뒤돌아 보고 그 분인 성실은 남자 분에게 어떻게 된 사연 인지를 물었다. 내용을 들어 보니 그제야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내 어린 자식 팔 내놓으라고 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 날 오후 주인 아주머니가 여섯살 먹은 막내 딸을 우리 방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딸을 피신 좀 시켜야 되겠다고 부탁해 왔었다. 그 날 밤 주인 아저씨의 친목계 모임을 집에서 치르게 되어 있어 내게 아이를 부탁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인 댁의 막내 딸이 우리 방에서 놀다 잠이 들었었다. 그런 얼마 후 아주머니는 “7시까지 우체국 앞으로 나오라”는 그이에게서 온 전화 내용을 전해주었다.

그 때 나는 그이가 다음날 출근

할 때 입을 바지에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아침 출근시 그이와도 미리 약속된 터인지라 나는 다리미의 코드 뽑는 것을 잊고 서둘러 나갔던 것이다. 사업에 실패한 이후 근 2년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뜻이 있는 외출이며, 외식날이어서 들뜬 기분이 끝내 화근을 불러 일으킨 것이었다. 과열된 다리미며 과열된 전선, 오랜 시간이 지나 이것들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음은 뻔한 것이었다. 그 때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잠든 어린애는 머리칼마저 타 들어가 마치 흑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 애가 살아났다는 것은 천만 다행으로 맨 먼저 화재 발견자인 그 또순이 아가씨 덕이었다. 또한 집안에 많은 남자분들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신의 보살핌이 없었던들 생각만해도 끔찍했다.

그이는 얼른 방안으로 들어가 어린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다. 다급한 환자 아이에게 먼저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주인댁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었지만 그런 기분은 금방 사라졌다. 나는 잠시 정신이 들자 방안으로 들어가 살림살이들을 살펴봤다.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 없이 조금씩 타 들어가 쓸모없게 되어 있었다. 내 몸처럼 아겨온 컬러 T.V며 나의 정서적인 생활을 이끌어 주었던 정든 전축 등 우리집의 가보들이 시커먼 색깔을 드러내며 나를 저주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었다. 집주인에 대한 죄책감과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들이 온통 무용지물로 되어버리자 모든것을 잃은 나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한없이 흐느끼고 말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격한 감정이 허공을 향해 폭발되었다.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낭패감에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괜찮아. 우리 너무 지쳐있었어. 그래서 순간 실수를 한거야.”

돌아다보니 병원에 갔다온 그이었다.

나는 그이를 왈칫 껴안고 한동안 흐느꼈다.

“언니. 이제 그만 울어요.”

옆방 또순이 아가씨의 위로였다. 그러나 어찌라 단 한번의 실수지만 무엇으로도 매꿀 수 없지 않은가.

그이가 현장 기술자들에게 부탁해서 불에 탄 부분들은 복구시켰지만 영 가실 것 같지 않은 그 아이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이후 주인집과 오랜 타협 끝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말았다. 더욱 슬픈 것은 그 곳에서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된 사실이었다. 나의 아픔은 한 쪽으로 떠밀쳐 놓더라도 실의에 빠진 그 때 그이의 표정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또한 우리의 실수로 팔에 흉터를 남기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 아이에게도 상당히 오랫동안 미안한 마음이 남아 나를 괴롭혔다.

전보다 더한 알거지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나는 쪼들린 살림에도 가정용 분말소화기 2대를 구입해서 비치해 두었고 정격 퓨즈며 전선들도 확인하며 집안 구석구석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 무서운, 나의 재산과 뱃 속의 어린 생명까지 잃게 한 화마를 막기 위해서 만반의 예방 조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네 속담을 생각하며……. (●)

